

‘진짜 신분증’ 건넨 순진한 강도



▲ 은행 강도(오른쪽)가 은행원에게 건넨 진짜 신분증.
사진=유튜브(CBS Chicago) 캡처

시카고의 한 은행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 28일 CBS시카고에 따르면 지난 25일 에드너 플로레스(34)라는 남성은 시카고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무장한 상태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적어 보여줬다.

은행 강도라는 것을 직감한 직원은 남성 몰래 ‘무음 신고벨’을 누른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강도와 대화를 시도했다. 직원은 그에게 얼마를 원하냐고 물었고, 강도는 인출 신청서에 1만 달러를 적어 보여줬다. 이에 직원은 인출을 위한 ATM 전용 카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말을 믿은 강도는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이 적힌 신분증을 건넸다.

이후 직원이 일을 처리하는 척하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강도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 행각 중 진짜 신분증을 들이밀었던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을 털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은행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경찰에게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강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은 무단 침입과 음주 운전, 마약 등 1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눈사람 부숴다고 해고된 청소부

헤리퍼드셔주에 사는 소피 테일러(25)는 지난 23일 3세 아들 요셉과 함께 집 앞에 높이 180cm가 넘는 큰 눈사람을 세웠다. 눈사람은 테일러와 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눈사람이 부서졌고 이를 본 아들이 상심에 빠지자 테일러는 곧장 CCTV를 확인해 눈사람을 부순 사람이 이 지역 청소부인 콜럼 우드하우스라는 사실을 알고 주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항의했다. 이에 헤리퍼드셔주 의회는 우드하우스를 해고했다.

이에 우드하우스는 “눈사람을 발로 찬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병병하다. 나는 당시 일을 할 때 눈사람이 방해가 된다고 느꼈을 뿐” 이라면서 “나는 즐지에 ‘눈사람 살인자’가 됐다. 눈사람을 만든 가족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 역시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지금



▲ 눈사람을 부수고 있는 청소부(왼쪽)와 부수기 전의 눈사람 모습.
사진=유튜브(BREAKING NEWS 247) 캡처

은 코로나19 팬데믹 중이라 일자리를 잃는 것이 더욱 힘들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헤드퍼드셔주 홈페이지에는 청소부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그를 복직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연일 보도했으며, 헤드퍼드셔주 역시 재고용의 뜻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자가격리 중 납치 당하면 무단이탈?



▲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던 남성(오른쪽). 사진=트위터(CNN)

타이완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법정 다툼의 결말이 3개월 만에 공개됐다.

타이완 국적의 남성 쉐는 10월 말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한 뒤 친구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격리 기간 중 친구 집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집주인인 쉐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추심자들이었다.

그들은 쉐를 집주인으로 오인하고 집 밖으로 끌고 갔고, 쉐는 이 과정에서 쉐는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해 다른 곳으로 끌려가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쉐는 자신은 집주인의 친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신히 이해시킨 뒤 다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왔지만, 방역 당국은 이미 그를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고발한 후였다. 지역 공중보건 당국은 쉐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10만 타이완달러(약 3,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쉐는 “채권 추심자들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나를 납치해간 것”이라며 반박했고,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현지 법원은 쉐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법무부 관계자는 “그가 잘못된 오해로 인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격리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당시 이 남성을 납치했던 채권 추심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 이라고 덧붙였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